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실험적 디자이너의 표현특성

김 은 정 · 박 옥 련*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외래교수
경성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실험적 디자이너의 표현특성을 분석하여, 디자이너들 간의 실험적인 작품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비교 연구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표현에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 자료를 얻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이론적 고찰과 패션컬렉션 사진을 바탕으로 사례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이 강하게 나타난 디자이너 빅터 앤 롤프, 후세인 살라얀, 알렉산더 맥퀸으로 한정하였다. 연구결과 빅터 앤 롤프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은 기발한 아이디어에 완벽한 쿠티르적 테크닉을 접목시킨 독창적인 디자인, 위트와 유머가 있는 역설적인 표현, 과장·왜곡·초현실주의적인 표현, 파격적인 퍼포먼스 등으로 분석되었다.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은 개념적인 것을 시각화시킨 디자인, 디자인의 변형과정 전개의 디자인화, 뉴 테크놀로지와의 접목, 혁신적인 퍼포먼스 등으로 분석되었다.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은 구조적 테일러링과 혁신적인 커팅의 파격적인 디자인, 상반된 요소의 공존과 혼합의 하이브리드, 낭만적 그로테스크, 서사적인 퍼포먼스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표현방식을 사용하지만 고정관념을 탈피한 디자인, 다양한 실험적인 조형기법, 다른 영역과의 하이브리드 시도, 환경적·문화적 요소의 접목, 아트 프로젝트나 혁신적인 퍼포먼스 패션쇼 등의 공통되는 표현 특성을 갖고 있었다. 이처럼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실험적 디자이너의 표현특성은 확일적이지 않은 혁신적인 시도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패션의 한계점을 벗어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으며,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영감을 미치고 있어 현대패션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실험적 디자이너, 디자인 표현특성, 테크놀로지 표현특성, 퍼포먼스 표현특성

I. 서론

오늘날 사회적·문화적으로 다변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대패션은 다양한 주제와 새로운 표현양식으로 다원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디자이너들은 전통적인 미의식과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새로운 디자인과 표현방식을 향한 시도들은 과학, 건축, 예술 등의 다른 영역과의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서로 융합되고 혼재되는 하이브리드(hybrid)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몇몇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시도로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과 혁신적인 스타일을 제시하였고, 패션컬렉션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의지와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후세인 살라얀(Hussein Chalayan),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가레스 퓨(Gareth Pugh) 등의 영국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파격적이고 다원화적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 네덜란드의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와 벨기에의 마르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a), 월터 반 베이런돈크(Walter Van Beirendonck) 등의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이 많이 표현되었다. 이처럼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은 실험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을 주축으로 아트 프로젝트(art project)나 퍼포먼스(performance) 형식의 표현을 통해 예술적인 형태를 부각시켰다.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표현에 의한 실험적인 디자인은 형태와 소재의 파괴, 위치전환과 기능변경,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변형들은 디자이너의 조형의지와 예술적 감성을 극대화시켜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디자이너들에 관한 선행연구는 빅터 앤 롤프의 디자인 발상과 작품 특성(김지영, 2010)¹⁾, 알렉산더 맥퀸 작품의 그로테스크적 특성(김선영,

2008)²⁾, Hussein Chalayan 컬렉션 분석(윤지영, 2009)³⁾,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에 나타난 하이테크 패션의 미적 특성(나현신, 2008)⁴⁾,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김영란, 2010)⁵⁾, 현대패션에서 하이테크 소재의 경향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박은경, 이재정, 2004)⁶⁾, 현대 패션쇼 퍼포먼스의 패션디자인 특성(남윤진, 김해연, 2011)⁷⁾ 등이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실험적인 디자이너 간의 표현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별로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실험적 디자이너의 표현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디자이너 빅터 앤 롤프, 후세인 살라얀, 알렉산더 맥퀸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과 논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고, 2000년 이후 발표된 패션컬렉션 사진자료는 www.style.com과 www.husseinchalayan.com을 통해 179점을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빅터 앤 롤프, 후세인 살라얀, 알렉산더 맥퀸의 2000년 S/S 컬렉션 이후 2012년 S/S 컬렉션까지 발표된 작품 중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의상 작품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실험적 표현특성이 강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분석하여 디자이너들 간의 실험적인 작품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비교 연구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표현에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 자료를 얻는데 있다.

II.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의 경향

현대사회의 변화흐름에 따라 오늘날의 패션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패션의 전반적인 경향은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공존, 복합, 다중화 되거나 변형되어 존재하고 있으며, 패션트렌드가 사회 전반의 모든 트

랜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도 과학과 기술 및 예술의 영향으로 더욱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주제와 표현양식을 바탕으로 한 다원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 건축, 예술 등의 다른 영역과 서로 융합되고 혼재되는 장르 간의 하이브리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패션에 나타난 예술과의 하이브리드 경향은 서로의 영역을 조금씩 차용하여 왔던 이전의 형식과는 다르게 어느 분야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동 작업에 의한 예술의상 형태로 나타났다. 프라다(Prada)의 2008 S/S 컬렉션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illustrator) 제임스 진(James Jean)과 작업하여, 의상과 일러스트의 균형 있는 조화를 통해 환상과 몽환의 세계가 표현되었다. 패션과 예술의 하이브리드 경향은 내용적인 면에서도 미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 전쟁과 같은 사회적 이슈를 주장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상황을 비추주는 트렌드를 이끌기도 하면서, 서로의 영역이 확장되고 다양한 불거리와 의미를 표현하였다. 패션과 테크놀로지와 하이브리드 현상은 더 이상 새롭지 않았던 단순한 감각의 디자인을 디지털시대에 알맞은 감성적이고 다기능적인 디자인으로 발전시켰다. 후세인 살라얀의 2007 S/S 컬렉션에서는 테크놀로지와 접목으로 의상형태가 자동으로 변형되는 의상이 제시되었고, 첨단적이고 이질적인 소재로 혁신적인 의상을 부각시켰다. 이처럼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첨단 소재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미래적인 스타일을 구현하였다. 또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지금까지 패션으로써 표현 가능했던 한계점을 벗어나 빛을 이용한 표현효과, 움직임의 표현효과 등 혁신적인 스타일을 통해 패션의 표현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서는 자율성을 추구하는 예술관의 변화에 따라 디자이너의 주관과 개성을 표현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미의식과 표현방식에서 벗어난 디자인과 형식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였고, 끊임 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실험적인 의상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몇몇 디자이너들은 새로운 시도으로써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패션과 혁신적인 스타일을 제시하였고, 컬렉션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조형의지와 예술적 감성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표현은 형태와 소재의 파괴, 위치전환과 기능변경,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 등 다양한 표현방식으로 나타났다. 가레스 푸는 2009 S/S 컬렉션에서 강한 흑백의 대비, 왜곡된 입체적 구조, 과장된 주름의 구조적인 결합 등으로 독창적인 스타일을 발표하였다.

디자이너의 예술적 감성과 독특한 조형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쿠티르적(couture-like) 디자인의 경향이 자주 나타났다. 이는 레트로(retro) 경향과 맞물려 수공예적 표현특성을 갖는 소재, 정교한 수작업의 디테일, 완벽한 테크닉 등이 부각되어 표현되었다. 이러한 쿠티르적 디자인의 경향은 단순히 모방할 수 없는 고급스런 디테일과 완벽한 테일러링(tailoring)을 통해 예술작품 같은 디자인을 선보이게 되었다. 빅터 앤 롤프는 2005 S/S 컬렉션에서 리본 디테일을 이용한 쿠티르적 수작업을 통해 역동적인 실루엣과 쿠티르적 독창성을 표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과장된 형태의 맥시멀리즘(maximalism) 경향도 나타났다. 과도함과 극단적인 경향은 거대한 크기의 실험적인 형태, 복잡한 구성과 지나친 장식, 다양한 시대의 양식적 요소와 민족적 이미지의 혼재 등으로 표현되었다.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2004 S/S 컬렉션에서 지나치게 부풀 소매와 부풀려진 숄사탕 같은 헤어스타일의 연출로 과장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고, 2004 F/W 컬렉션에서 풍성하고 확대된 스커트와 프릴, 술 장식, 민속품 등으로 지나치게 장식하여 에스닉 이미지(ethnic image)의 과장된 패션을 보여주었다.

한편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회적 문제인 환경오염이 현실로 직면하며 이슈화되자, 패션에서도 이를 극복해나갈 미래패션으로 에코-퓨처리즘(eco-futurism) 경향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에코-퓨처리즘은 친환경주의 뉴-에코(new-eco) 패션과 미래주의 패션이 결합된 새로운 경향으로 유기적인 형태감을 강하게 표현하였다. 다양한 기능과 형태적 변형, 절제된 실루엣, 고급스러운 하이테크(hightech) 소재를 사용하여 리사이클(recycle)이나 자연적 이미지를 상징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디자인 주제나 영감으로 나타났으며, 알렉산더 맥퀸은 2010 S/S 컬렉션 『프레이토스 아틀란티스(Plato's Atlantis)』에서 유기적 형태의 패션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2000년 이후 실험적인 디자이너들은 패션컬렉션을 연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아트 프로젝트나 퍼포먼스 형식으로 표현하는 예술적인 형태의 혁신적인 퍼포먼스들이 많이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컬렉션에서는 장르 간 하이브리드, 경험, 기술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소통과 융합을 위한 퍼포먼스와 신기술을 응용한 퍼포먼스들이 시도되고 있다.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면이 강한 빅터 앤 롤프, 알렉산더 맥퀸, 후세인 살라얀,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존 갈리아노,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 등은 혁신적인 퍼포먼스를 예술적인 형태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경향은 다른 영역과 서로 융합되고 혼재되는 장르 간의 하이브리드 경향이 다양하게 나타나 패션의 표현 가능한 영역이 확대되었다. 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실험적인 시도가 많이 나타났으며, 형태와 소재의 파괴, 위치전환과 기능변경, 이질적인 것들의 조합 등 여러 가지 표현방식에 의한 차별화된 경향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쿠티르적 테크닉의 표현 특성으로 예술적인 가치

가 높은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과도함과 극단을 추구하는 경향과 에코-퓨처리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였다. 또한 아트 프로젝트나 퍼포먼스 형식으로 표현하는 예술적인 형태의 혁신적인 퍼포먼스 패션쇼의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III.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실험적 디자이너의 표현특성

국립국어원의 사전에 의하면 ‘실험’이란 ‘새로운 방법이나 이론을 사용해 봄, 혹은 과학에서 이론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험적 디자이너란 이론이나 학설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방법이나 형식을 시험하며 독특한 작품세계를 나타내는 디자이너를 말한다. 이러한 정의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벗어난 패션디자인 창작뿐만 아니라 연출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의 주관과 창작의지를 바탕으로 실험적 작품을 일관되게 발표한 디자이너를 의미한다. 이에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실험적인 디자이너의 표현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위의 정의에 부합하는 빅터 앤 롤프, 후세인 살라얀, 알렉산더 맥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여러 번 수상하며 가장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표현한다고 평가받고 주목받는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이다. 특히, 1990년대 초반에 데뷔 후 컬렉션마다 꾸준히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으며, 패션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빅터 앤 롤프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

빅터 앤 롤프는 빅터 호스팅(Viktor Horsting)과 롤프 소렌(Rolf Soren)이라는 두 명의 남성 디자이너

너가 이끄는 브랜드로,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를 보여주며 패션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3년 갤러리에서 설치작품들을 전시하며 데뷔하였고, 1998년부터 오트 쿠튀르(haute couture) 컬렉션을 통해 기발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발표해 왔으며, 2000년 이후 프레타 포르테(prêt-à-porter) 컬렉션에서 참가해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빅터 앤 롤프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은 프레타 포르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2000 S/S 컬렉션부터 2012 S/S 컬렉션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빅터 앤 롤프는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멋진 옷을 만들기 보다는 새로운 것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패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의 것, 하나밖에 없는 것,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⁸⁾ 이에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완벽한 쿠튀르적 테크닉을 접목시켜 다양한 실험적인 의상들을 선보였다. <그림 1>은 2007 F/W 컬렉션 『더 패션 쇼(The Fashion Show)』의 작품으로, 패션의 표현수단인 패션쇼 그 자체를 아이디어로 이용한 의상이다. 일반적으로 패션쇼는 모델이 의상을 입고 공통된 음악과 조명연출을 배경으로 위킹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개개인의 모델들에게 각자의 음향장치와 조명장치가 달린 철제 오브제(objet)를 착용시켜 위킹하도록 연출하였고, 모델들은 각자의 음악에 맞춰 모두가 스포트라이트(spotlight)를 받는 개개인의 독립된 패션쇼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는 패션을 단순히 착용과 치장을 위한 수단이 아닌 아이디어의 표현수단으로 확장시켰으며⁹⁾, 상품으로서의 디자인을 넘어 아이디어가 바로 패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빅터 앤 롤프는 위아래, 안 밖 등과 같은 기존의 질서와 남성성과 여성성, 연약함과 강인함, 빛과 어둠 등과 같은 고정관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실험적인 의상들을 선보였다. 이들은 전통적, 이분법적인 규범

이나 질서를 깨뜨리고 유머와 위트를 곁들여 표현하였다. <그림 2>, <그림 3>은 2006 S/S 컬렉션 『업사이드 다운(Upside Down)』의 작품으로, 작품명의 의미가 잘 반영된 의상이다. <그림 2>는 드레스의 위아래의 방향이 거꾸로 뒤집힌 디자인으로, 드레스의 가슴부분이 발목을 향하고 있고 스커트의 러플들은 어깨를 향해 펼쳐져 있다. <그림 3>도 상의의 여밈선이 한쪽 어깨를 향해 비틀린 디자인으로, 마치 의상을 급하게 입어 뒤틀린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이들은 바로 입을 수도 있고 거꾸로 뒤집어 입을 수도 있게 디자인하거나, 소매가 바지가 되고 뷔스티에(bustier)가 스커트가 되는 것처럼 상의와 하의를 뒤바꾸어 구성하거나, 의상의 형태를 한쪽 방향으로 비틀어 입을 수 있게 재단을 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의복구성의 질서를 깨뜨려 새로운 시각적 구성을 역설적으로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유머와 재미가 있는 초현실적 이미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는 2004년 S/S 컬렉션 『레드 슈즈(Red Shoes)』의 작품으로, 대조적인 개념을 결합시킨 의상이다. 이들은 부드러운 소재의 풍성한 드레스와 심플한 바지 한쪽을 조합하여, 여성성과 남성성의 대조적인 개념을 결합시켰다. 이는 전통적인 성의 이분법적인 개념을 깨뜨림과 동시에 여성성이나 남성성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밸런스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림 2>,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역설적 표현은 초현실적 이거나 아방가르드(avant-garde)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빅터 앤 롤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역설적 표현은 완벽한 쿠튀르적 테크닉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형적 표현기법을 이용하여 실험적 시도로 나타났다. <그림 5>는 2005 S/S 컬렉션 『플라워밤(Flowerbomb)』의 작품으로, 극도로 과장된 리본의상이다. 리본은 디테일적인 요소로 기존에는 부분적인 장식으로 사용되었지만, 이들은 리본을 과장시켜 디자인의 주된 요소로 전환시켰다. 이로

인해 의상은 커다란 리본으로 여러 겹 묶은 럭셔리한 선물의 포장에 벗겨진 것처럼 드라마틱한 드레스로 표현되었다. <그림 6>은 2005 F/W 컬렉션 『베드타임 스토리(Bedtime Story)』의 작품으로, 의상과 침구류의 결합으로 인해 왜곡된 상황을 연출한 의상이다.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마치 침대 위에 누운 듯이 보이도록 의도된 것으로, 주름져 흘러내린 가운은 침대시트의 변형이고, 화려한 퀼트 코트(quilt coat)는 누비이불의 변형이며, 거대한 칼라(collar)는 베게의 변형이다. 특히 머리카락까지 섬세하게 연출하여 잠에서 막 깨어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며, 몽환적 장면을 연출하였다. <그림 2>, <그림 3>도 위아래가 거꾸로 표현되었거나 상의와 하의가 뒤바뀌어 왜곡되게 연출하였다. 이러한 왜곡된 상황은 신선한 충격과 재미를 제시하는 극적인 장면이 되었다. <그림 7>은 2008 S/S 컬렉션 『더 피어로 컬렉션(The Pierrot collection)』의 작품으로,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의상이다. 만 레이(Man Ray)의 초현실주의 사진인 『앵그르의 바이올린(Ingres's Violin, 1924)』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¹⁰⁾ 마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처럼 바이올린 모티브를 드레스의 넥라인 부분에 위치시키고 입체적으로 연출하여 초현실주의적인 표현을 하였다. <그림 8>은 2010 S/S 컬렉션 『커팅 에지 쿠티르(Cutting Edge Couture)』의 작품으로, 과장과 증첩에 의한 거대한 조형의상이다. 지나치게 과장된 커프스의 증첩과 복잡한 재단의 스커트는 여러 가지 소재로 겹쳐 사용하였다. 이들은 디테일의 증첩과 나열을 통해 거대한 조형 형태를 보이며 실험적인 프로포션(proportion)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반복에 의한 과장된 형태는 양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의도를 확장시켜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적이었다. 이처럼 과장된 볼륨은 극한적인 과장과 형태적 왜곡으로 표현되었고, 일반적인 공간조화의 이탈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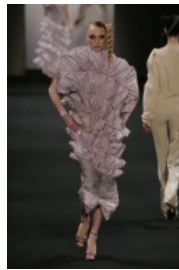
한편 빅터 앤 롤프는 빛을 이용한 실험적인 의

상을 선보였다. 1999 S/S 컬렉션 『블랙 라이트(Black Light)』에서 조명을 이용하여 검은 조명 아래에서는 흰색의 디테일만, 흰 조명 아래에서는 작품의 실제모습이 드러나게 한 간단한 실험적인 의상을 선보였었지만, 2000년 이후에 나타난 실험적인 시도는 테크놀로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9>는 2002 F/W 컬렉션 『블루스크린(Bluescreen)』의 작품으로, 크로마키(chromakey)라 부르는 TV 비디오 기술과 의상을 접목시킨 아이디어 디자인이었다. 모델이 입고 있는 복잡한 디자인의 파란색 의상에 영상을 비추면, 파란색 의상이 갖고 있던 색상이나 디테일 같은 디자인적 특성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 또 파란색 의상은 마치 영화 스크린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 영상에 의해 즉각적으로 다양한 무늬가 적용된 새로운 의상으로 보였다. 이는 패션은 단지 이미지일 뿐이라는 아이디어를 재연한 것으로, 의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겹이 존재하고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다.¹¹⁾ 이처럼 TV 비디오 기술로써 사용되었던 미디어 테크닉을 의상에 응용한 아이디어로 의상의 표현 가능한 영역을 보다 넓게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빅터 앤 롤프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의상은 퍼포먼스적인 패션쇼를 통해 그 특징이 더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10>은 2010 F/W 컬렉션 『글래머 팩토리(Glamour Factory)』의 작품으로, 두 디자이너의 퍼포먼스가 돋보이는 의상이다. 이것은 두 디자이너가 모델에게 9겹의 의상을 하나씩 겹쳐 입혔던 1999 F/W 컬렉션 『러시안 돌(Russian Doll)』의 퍼포먼스와 비슷하였다. 볼트와 너트, 톱니바퀴가 장식된 무대와 공장의 기계소리 음향 속에서 10겹의 아우터를 입은 메인모델이 회전무대에 섰고, 뒤를 이어 두 디자이너가 나와 메인모델의 의상을 벗겨 다른 모델에게 착용시켰다. 차례대로 의상을 다 벗어 속옷형식이 된 메인모델은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모델들에게서 벗겨낸 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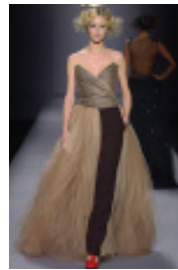
<그림 1> 빅터 앤 롤프
2007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2> 빅터 앤 롤프
2006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3> 빅터 앤 롤프
2006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4> 빅터 앤 롤프
2004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5> 빅터 앤 롤프
2005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6> 빅터 앤 롤프
2005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7> 빅터 앤 롤프
2008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8> 빅터 앤 롤프
2010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9> 빅터 앤 롤프
2002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그림 10> 빅터 앤 롤프
2010 F/W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터 12접을 하나씩 겹쳐 입었다. 이 과정에서 두 디자이너들은 스트링(string)과 지퍼(zipper)를 이용하여 아우터의 스트링을 조이고 풀기도 하고, 지퍼를 열고 닫으며 길이와 사이즈를 조절하여 의상의 다양한 변형을 보여주었다. 또 풀 스커트(full skirt)가 코트가 되고, 버슬(bustle)이 엘리자베스 칼라(elizabeth collar)장식으로 변하는 놀라운 변형도 선보였다. 이는 착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실험적인 퍼포먼스로서, 디테일의 조절에 의한 변형, 과도한 크기의 주름장식의 아이템 변형 등 기능적이고 획기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그림 2>, <그림 3>은 컬렉션 이름에 알맞게 패션쇼도 디자이너의 무대인사, 피날레(finale), 웨딩드레스 등의 순서로 거꾸로 진행되었고, 무대장식, 음악에 이르기까지 모두 거꾸로 진행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따라서 파격적인 퍼포먼스 형식의 컬렉션을 통해 작품의 디자인 의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각화시켜 명확

하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빅터 앤 롤프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은 쿠티르적 테크닉, 초현실적 이미지, 역설적 표현, 대조적 개념의 결합, 테크놀로지, 퍼포먼스이다.

2.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

후세인 살라얀은 테크놀로지, 예술과 패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자신만의 독특한 패션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고, 항상 진보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함으로써 패션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94 F/W 컬렉션 『카르테시아(Cartesia)』로 데뷔한 이후, 패션뿐만 아니라 설치미술, 영화 등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산업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패션에 대한 진보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이어나갔다.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은 2000 S/S 컬렉션부터 2012 S/S 컬렉션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후세인 살라얀은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서 “건축, 과학 혹은 자연과 같이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 신체의 역할을 고찰하였고, 이 방법을 의복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연구결과를 의복으로 바꾸려는 실험을 한다.”¹²⁾라고 말하였다. 또 인생, 시간, 여행, 희망, 원죄, 고독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을 인체를 통해 완성된 ‘의상’이라는 대상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도 하였다.¹³⁾ 그는 자신의 패션철학과 창작의지에 따라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논리적, 과학적, 철학적인 것으로 전환시켜 개념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1>, <그림 12>, <그림 13>은 2000 S/S 컬렉션 『비포 마이너스 나우(Before Minus Now)』의 작품으로, 인류, 기술, 자연 사이의 힘에 대한 상호관계를 표현하였다. 디자인의 주된 영감은 중력, 팽창, 기후 변화 등에 의해 일어나는 수많은 다른 모양들이었다. <그림 11>은 중력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의상이다. 빨간 드레스에 기술적인 장치를 이용하여 스커트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스커트의 형태변화를 보여주며 중력의 존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2>는 자연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의상이다. 툴(tull) 소재를 자르고 깎는 과정을 통해 드레스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구조적 붕괴와 부식에 의해 산이 생겨나는 방식에 영감을 받았다.¹⁴⁾ <그림 13>은 자연의 힘에 의한 지반의 변화를 형상화한 의상이다. 지반을 형상화한 상의와 풍성한 볼륨을 가진 주름진 플레어스커트로, 자연원리에 따른 힘에 의해 지반의 융기와 확장이 일어나는 형태를 여러 벌의 작품들로 구성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4>는 2001 S/S 컬렉션 『벤트릴로퀴(Ventriloquy)』의 작품으로, 무(無)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의상이다. 모델이 착용한 슈가 글라스(sugar glass) 드레스를 망치로 부숴버리면 모델은 거의 나체가 되는데, 이를 통해 인체는 결국 무(無)의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표현함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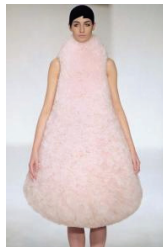
시에 유행의 일회성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막연하고 어려운 철학적인 개념이나 논리적 과정들을 단순한 시각적 표현으로 변화시켜 쉽게 설명하면서도 패션을 철학적인 영역으로 한층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후세인 살라얀의 개념적인 디자인은 의복의 변형과정을 일련의 작품들을 통해 전개하는 실험적 시도로 나타났다. <그림 15>, <그림 16>은 2000 F/W 컬렉션 『에프터워드(Afterwords)』의 작품으로, 가구에서 의상으로 변형되는 의상이다. <그림 15>는 슬립을 입은 모델이 의자의 회색 덮개를 벗겨내어 그것을 뒤집어 입으면 빨강, 주황, 연보라 등의 드레스로 변형되었다. <그림 16>은 둥근 테이블 중앙의 디스크를 제거하고 모델이 중앙부에 들어간쪽의 끝부분을 엉덩이로 끌어올려 허리에 붙이면, 테이블은 아코디언(accordion) 형태의 스커트로 변형되었다. 이는 하나의 작품이 변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구에서 의상으로 형태적, 기능적으로 변하는 과정의 참신함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패션쇼였다. <그림 17>은 2002 F/W 컬렉션 『엠비모르푸우스(Ambimorphous)』의 작품으로, 리틀 블랙 드레스가 단계별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준 의상이다.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는 웅장하고 화려한 색상의 전통적인 터키의상으로 변형되었다가, 다시 단계적으로 변하여 이전과는 다른 리틀 블랙 드레스로 변형되었다. 이는 여러 벌의 의상 작품들이 이어져서 변형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디자이너의 의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어가는 지를 명확하게 표현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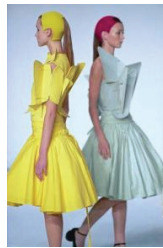
한편, 과학기술에 대한 후세인 살라얀의 실험은 더욱 혁신적이고 실험적 시도로 나타났다. <그림 18>은 2000 S/S 컬렉션 『비포 마이너스 나우』의 작품으로 유리섬유로 만든 드레스에 리모트 컨트롤(remote control) 장치를 내장시켜 원격 조정기에 의해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 비행기 날개가 움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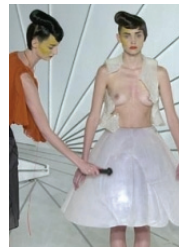
<그림 11>
후세인 살라얀
2000 S/S 컬렉션
(출처: www.hussein-chalayan.com)



<그림 12>
후세인 살라얀
2000 S/S 컬렉션
(출처: www.hussein-chalayan.com)



<그림 13>
후세인 살라얀
2000 S/S 컬렉션
(출처: www.hussein-chalayan.com)



<그림 14>
후세인 살라얀
2001 S/S 컬렉션
(출처: www.hussein-chalayan.com)



<그림 15>
후세인 살라얀
2000 F/W 컬렉션
(출처: www.hussein-chalayan.com)



<그림 16> 후세인 살라얀,
2000 F/W 컬렉션
(출처: www.hussein-chalayan.com)



<그림 17> 후세인 살라얀,
2002 F/W 컬렉션
(출처: www.hussein-chalay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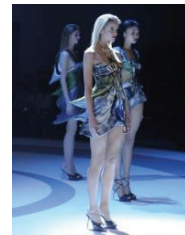
<그림 18> 후세인 살라얀
2000 S/S 컬렉션
(출처: www.hussein-chalayan.com)



<그림 19> 후세인 살라얀
2007 S/S 컬렉션
(출처: www.hussein-chalayan.com)



<그림 20> 후세인 살라얀
2007 S/S 컬렉션
(출처: www.hussein-chalayan.com)



<그림 21> 후세인 살라얀
2009 S/S 컬렉션
(출처: www.hussein-chalayan.com)

이는 것처럼 드레스의 양 옆과 뒤가 부분적으로 펼쳐지면서 속에 있던 페티코트(petticoat)가 나오도록 하였는데, 이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창작자, 조종자, 의복이 상호 연결되어 제어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19>, <그림 20>은 2007 S/S 컬렉션 『원 한드레드 앤 일레븐(One Hundred and Eleven)』의 작품으로, 지난 백 십년간 전쟁, 혁명, 정치,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변화해 온 패션을 탐구하였다. 첨단 과학 장치를 이용한 의상으

로, 기계공학적으로 설계된 드레스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디자인 된 혁신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이었다. <그림 19>는 챙이 넓은 모자에서 둥근 모자 모양으로 변하고, 캡(cap) 형태의 소매가 슬리브리스(sleeveless) 형태로 변하고, 스커트가 부풀어 올라 펼쳐지기도 하고, 스커트에 붙은 패널(panel)들 위에 금속성의 다른 재질이 내려와 변화되는 등 디자인의 형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놀라운 변형을 보여주었다. <그림 20>도 모델이 착용했던 의

상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마지막에는 모자 속으로 의상이 모두 사라져버려 나체의 모습을 하게 된다. 이것은 기계의 힘에 의해 인간을 무(無)의 상태로 보내는 것으로, 후세인 살라얀은 무(無)의 존재로서 실존하는 인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¹⁵⁾ 이처럼 후세인 살라얀은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계장치를 이용한 실험적 디자인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개념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또 하이테크패션의 장르를 보다 넓게 확장시켰으며, 미니멀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발전시켰다. 한편, 후세인 살라얀은 건축적인 분야에서도 놀라운 감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림 15>, <그림 16>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구에서 의상으로 변형하는 의상이다. 이것은 코소보(Kosovo) 전쟁을 은유화한 것으로 전쟁 중에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던 경험에 착안하여, 패션을 ‘이동식 건축(portable architecture)’으로 생각하게 하였고, 도시의 유목생활(urban nomadism)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¹⁶⁾ 이처럼 후세인 살라얀은 패션과 건축, 과학, 미디어 등의 다양한 분야와의 결합을 통해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하였다. 따라서 후세인 살라얀은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여러 분야와의 접목으로 의상을 차원 높은 종합예술의 경지로 승화시켰다.

후세인 살라얀의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의상들은 획기적인 패션쇼를 통해 더 명확하게 그 특성을 나타냈다. <그림 21>은 2009 S/S 컬렉션 『이너서(Inertia)』의 작품으로, 단단하고 조각적인 라텍스(latex) 드레스 의상이다. 어떤 힘에 의해 뒤쪽으로 밀려가는 듯 왜곡된 실루엣으로 충돌에 의해 생겨나는 순간을 생생히 표현하였다. 이는 현대 삶의 속도감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충돌에 의해 일어나는 결과를 표현하였다. 그는 자동차 폐차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추상적인 무늬로 활용하고, 스피드와 충돌로 발생된 분절된 이미지와 파편들을 노엘 스튜어트(Noel Stewart)의 찌그러뜨린 모자와 장난

감 같은 플라스틱 안경에도 표현하였다. 회전 무대와 수많은 와인 잔들이 진열된 바, 소름 돋는 글라스 뮤직으로 시작한 패션쇼는 ‘광’하는 광음과 함께 수십 개의 와인 잔이 깨지며 극적으로 끝이 났다. 이처럼 후세인 살라얀은 자신의도를 전달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행위와 과정의 혁신적인 퍼포먼스라는 수단으로 보다 효과적인 소통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은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경계의 모호성, 개념적 디자인, 변형과정(transform), 퍼포먼스이다.

3.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

알렉산더 맥퀸은 전통적인 테일러링 방법과 날카로운 커팅(cutting)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스타일과 도발적인 패션쇼를 통해 주목을 받았다.

1993 F/W 『택시 드라이버(Taxi Driver)』 컬렉션을 통해 디자이너로 데뷔 후, 1996년 지방시(Givenchy)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로 활동하면서 패션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2010년 2월 사망하기까지 패션계의 악동으로 불리며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 선보였다.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은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런칭한 이후의 2001 S/S 컬렉션부터 죽기 전 남긴 마지막 16벌의 2010 F/W 컬렉션까지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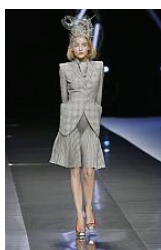
알렉산더 맥퀸은 역사와 전통에 대해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이를 통찰하고 재해석하여 구조적 테일러링과 혁신적인 커팅을 통해 반전통적인 경향의 실험적인 시도를 하였다. <그림 22>는 2008 S/S 컬렉션 『라 담 블루(La Dame Bleue)』의 작품으로, 영국 전통의 체크재킷을 재해석한 파격적인 테일러링 의상이다. 그는 재킷에 각진 어깨라인이 특징적인 남성복 테일러링을 접목하고 어깨와 엉덩이를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적이면서도 엄격하고

강한 느낌의 재킷으로 재해석하였다. 부채꼴 주름의 얇은 바지는 쿼터즈적 테크닉을 이용한 것으로 파격적인 재킷과 조화를 이루어 현대적인 여성 이미지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3>은 2008 F/W 컬렉션 『더 걸 후 라이브 드 인 더 트리(The Girl Who Lived In The Tree)』의 작품으로, 나폴레옹 스타일(Napoleon style)을 재해석한 의상이다. 금색 단추와 브레이드(braid)로 장식된 조끼, 섬세하게 드레이프 된 드레스, 금색 레깅스(leggings)를 조화시켜 절제된 밀리터리룩(military look)으로 재해석하였으며, 아름답고 몽환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4>는 2009 F/W 컬렉션 『더 혼 오브 플렌티(The Horn Of Plenty)』의 작품으로,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의 패션을 재해석하여 파격적으로 표현한 의상이다. 크리스찬 디올의 부팽 스타일(Bouffant Style) 드레스와 검은색의 하운드 투스 체크(hound tooth check)가 프린트된 선명한 빨간색 원단에 알렉산더 맥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새를 함께 프린트하여 자신만의 스타일로 강렬하게 표현하였다. 여장남자 같은 메이크업과 알루미늄 캔, 플라스틱 머리장식의 액세서리 등은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주며, 역설적으로 우아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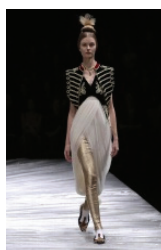
알렉산더 맥퀸은 자신의 복잡하고 강렬한 미적 감성은 상반된 요소와 함께 공존시키는 혼합적 성향의 실험적인 시도로 나타났다. <그림 25>는 2005년 S/S 컬렉션 『잇츠 온리 어 게임(It's Only a Game)』의 작품으로, 로코코 스타일(rococo style)과 기모노 스타일을 공존시켜 표현한 의상이다. 로코코 스타일의 데콜레테(décolleté)와 일본의 고소대(17)를 같이 혼합시켰고, 로코코 스타일의 거대한 머리 장식을 일본식 정원으로 꾸민 것으로, 서양과 동양이라는 상반된 요소를 공존시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6>, <그림 27>은 2006 F/W 컬렉션 『더 위도우 오브 컬로든(The Widows Of Culloden)』의 작품으로, <그림 26>은 새와 인간을

공존시켜 반조류의 이질적인 형상을 표현한 의상이다. 새의 날개와 깃털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붙여 만든 티어드 드레스(tiered dress)는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7>은 사슴뿔과 레이스 머리장식 등의 이질적인 재료들을 공존시켜 표현한 의상이다. 사슴뿔의 강인함과 레이스의 부드러움을 공존시켜 환상적이고 신화적 여성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림 22>는 남성적인 테일러링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성의 공존, <그림 23>은 과거 시대복식과 현대 복식과의 공존, <그림 24>는 우아한 디올 룩과 현대를 조화시킨 공존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알렉산더 맥퀸은 새나 사슴, 파충류나 외계 생명체를 떠올리게 하는 형상이나 인체와의 혼합, 과거 서양복식에 대한 재해석과 미래복식에 대한 제안으로 표현된 시간의 조합, 나뭇가지나 깃털 같은 거칠고 이질적인 재료를 조합하여 강인함과 부드러움 등을 공존시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렉산더 맥퀸은 스스로를 ‘낭만적인 정신 분열증 환자’라 말하며, 로맨틱(romantic)이라는 아름다운 소재를 기이한 방법으로 해석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그림 28>은 2001 F/W 컬렉션 『왓 어 메리 고 라운드(What A Merry Go Round)』의 작품으로, 악마적이고 낭만적인 스타일로 표현한 의상이다. 이 작품은 뾰족한 머리형, 지저분하고 낡은 드레스, 창백한 피부에 피를 흘리는 듯한 분장으로 마귀나 주술사 같은 섬뜩하고 괴이한 모습을 효과 있게 표현하였다. 이것은 슬픔, 우울, 비참함, 죽음, 타락 등을 상징하였고, 아름답고 숭고한 것의 이면에 있는 그로테스크(grotesque)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9>는 2002 F/W 컬렉션 『슈퍼칼리프라질리스틱익스피알리도서스(Supercalifragilisticexpialidocious)』의 작품으로, 공포와 낭만적 스타일이 결합된 의상이었다. 또한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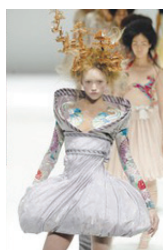
<그림 22>
알렉산더 맥퀸
2008 S/S 컬렉션
(출처: www.
style.com)



<그림 23>
알렉산더 맥퀸
2008 F/W 컬렉션
(출처: www.
style.com)



<그림 24>
알렉산더 맥퀸
2009 F/W 컬렉션
(출처: www.
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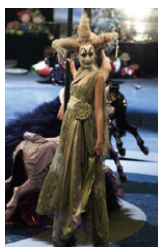
<그림 25>
알렉산더 맥퀸
2005 S/S 컬렉션
(출처: www.
style.com)



<그림 26>
알렉산더 맥퀸
2006 F/W 컬렉션
(출처: www.
style.com)



<그림 27>
알렉산더 맥퀸
2006 F/W 컬렉션
(출처: www.
style.com)



<그림 28>
알렉산더 맥퀸
2001 F/W 컬렉션
(출처: www.
style.com)



<그림 29>
알렉산더 맥퀸
2002 F/W 컬렉션
(출처: www.
style.com)



<그림 30>
알렉산더 맥퀸
2010 F/W 컬렉션
(출처: www.
style.com)



<그림 31>
알렉산더 맥퀸
2006 F/W 컬렉션
(출처: www.
style.com)



<그림 32>
알렉산더 맥퀸
2010 S/S 컬렉션
(출처: www.
style.com)



<그림 33>
알렉산더 맥퀸
2005 S/S 컬렉션
(출처: www.style.com)

세기 빅토리안(Victorian)시대 고딕(Gothic)양식에서 영감을 받아 로맨틱과 공포의 요소가 결합되어 약간은 깊고 우울한 느낌으로, 삶과 죽음, 밝음과 어두움의 대립을 보여주는 낭만주의적 고딕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0>은 2010 F/W 컬렉션 『엔젤스 앤 디먼스(Angels and Demons)』의 작품으로, 화려하고 성스럽게 낭만적인 스타일로 표현한 의상이다. 정교하고 수공예적인 기법으로 장식하여 쿼터릭 테크닉이 돋보이는 의상이다. 중세 예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신비한 종교적 분위기를 엄숙하고 비장미가 있게 표현하였는데 중세의 암흑기 속에 존재하는 빛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5>는 일본풍을 가미한 이국적인 낭만주의를 표현하였고, <그림 26>, <그림 27>은 사슴뿔, 깃털 등과 같은 자연적인 소재를 조합시켜 숭고한 낭만적인 스타일을 초현실적

이고 미래적이며, 환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처럼 아름다움, 숭고함, 공포 등을 독특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해석하여, 알렉산더 맥퀸만의 방식으로 낭만적이고 숭고하게 표현하거나, 때로는 어둡고 비장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31>은 2006 F/W 컬렉션 『더 위도우 오브 킬로든』의 작품으로 테크노 매직(techno-magic)을 선보였다. 투명한 유리로 된 피라미드 안에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와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그 속에 홀로그램(hologram)을 이용하여 케이트 모스(Kate Moss)의 모습이 일렁이며 나타나게 하였다. 이러한 일렁이는 이미지는 뒤이어 나오는 의상들에게 응용되어 러플과 플라운스(flounce)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32>는 2010년 S/S 컬렉션 『프레이트스 아틀란티스』의 작품으로 컴

퓨터 그래픽(Computer Graphics: CG) 기술을 접목시킨 의상이다. 이것은 미래의 붕괴된 생태계와 종말을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미래의 인간은 바다에서 진화한 생물체로 변하고, 인간이 바다로 복귀한다는 이야기 설정에 맞추어 전개된 것이다. CG 기술을 접목시킨 소재를 통해 무늬나, 색상, 재질 등 다른 생물체의 이미지를 마치 실제와 같이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한편 알렉산더 맥퀸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실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시각화 시키는 패션쇼를 연출하였다. <그림 33>은 2005년 S/S 컬렉션 『잇즈 온리 어 게임』의 퍼포먼스로, 인간 체스게임(chess game)으로 연출한 도발적인 시도이다. 영화 『해리 포터 앤 더 소서러스 스톤(Harry Potter And The Sorcerer's Stone)』에서 영감을 받아 갑옷, 미식축구 복장, 여왕드레스, 파티드레스 등을 입은 기모노풍과 프레피룩(preppy look)을 체스판 위에 설정하여 인간 체스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대립과 문화적, 경제적 침탈 등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은 2006 F/W 컬렉션 『더 위도우 오브 킬로든』의 퍼포먼스로 테크노 매직을 선보였다.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케이트 모스의 모습이 일렁이며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는 마약 스캔들로 곤경에 빠진 그녀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케이트 모스의 이미지를 무대에 투사하였다. <그림 32>는 2010년 S/S 컬렉션 『프레이트스 아틀란티스』의 퍼포먼스로 오락 쇼로 생중계하려 했던 실험적인 시도이다. 이것은 여성이 무대 뒤쪽의 스크린에서 CG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생물체로 진화하는 동적인 이미지를 상영하여 패션쇼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연출하였다. 따라서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은 역사성, 반전통성, 쿠티적 테크닉, 역설적 표현, 공존과 혼합, 낭만적 그로테스크, 테크놀로지, 퍼포먼스이다.

IV. 2000년 이후 실험적 디자이너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 비교분석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실험적 디자이너의 표현특성을 디자이너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빅터 앤 룰프, 후세인 살라얀, 알렉산더 맥퀸은 각각 자신의 패션철학에 따라 서로 다른 실험적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조형의지와 예술적 감성의 표현도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예술적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를 배경으로 성장하였기에 넓은 관점에서는 공통적 특징을 나타냈다.

이에 빅터 앤 룰프, 후세인 살라얀, 알렉산더 맥퀸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 표현특성, 테크놀로지 표현특성, 퍼포먼스 표현특성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정리했다. 디자인 표현특성에서는 디자이너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디자인 철학과 메시지를 어떻게 영감을 얻고 이를 실험적으로 작품화하는지, 디자이너의 조형적 의지에 따라 어떤 기법을 사용하여 특징을 나타내는지, 어떤 소재를 이용하여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테크놀로지 표현특성에서는 어떤 첨단 테크놀로지 기술과 실

<표 1> 실험적 디자이너 3인의 표현특성

표현특성 \ 디자이너	빅터 앤 룰프	후세인 살라얀	알렉산더 맥퀸
쿠티적 테크닉	○		○
역설적 표현	○	○	○
대조, 이질적 결합	○	○	○
개념적 디자인		○	
전개과정		○	
역사성			○
반전통성	○	○	○
테크놀로지	○	○	○
초현실적 이미지	○		○
미래적 이미지		○	○
낭만적 그로테스크			○
퍼포먼스	○	○	○

험적인 접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타나는 특징과 효과를, 퍼포먼스 표현특성에서는 디자이너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패션쇼가 어떤 실험적 형식과 연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1. 디자인적인 표현특성 비교

빅터 앤 룰프, 후세인 살라얀,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표현특성의 비교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에 나타난 디자인 표현특성 비교분석

디자인 표현특성		
차이점	빅터 앤 룰프	- 이분법적 고정관념의 탈피 - 고정관념의 역설적 표현 - 대조적 개념의 결합 - 초현실적 이미지 - 중첩, 반복, 과장, 위치전환, 형태왜곡
	후세인 살라얀	- 개념의 시각화에 의한 디자인 - 디자인 변형과정의 전개 - 단순하고 구조적인 디자인형태 - 테크놀로지의 디자인화 - 비관습적 소재 사용
	알렉산더 맥퀸	- 낭만적 그로테스크 - 역사성과 반전통성 - 상반된 요소 공존 하이브리드 - 쿠투르적 테크닉 - 형태의 왜곡과 과장 - 자연적 소재
공통점		- 역사적, 사회적, 환경적 주제인식 - 패션철학 - 독창성 연구, 개성적 표현 - 실험적인 시도 - 이질적 소재사용, 오브제와의결합

2. 테크놀로지 표현특성 비교

빅터 앤 룰프, 후세인 살라얀, 알렉산더 맥퀸의 테크놀로지 측면에서 살펴본 표현특성의 비교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실험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에 나타난 테크놀로지 표현특성 비교분석

테크놀로지 표현특성		
차이점	빅터 앤 룰프	- 크로마키 기술사용
	후세인 살라얀	-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 변형 - LED, 레이저 발광장치 등 전기적 발광
	알렉산더 맥퀸	- 홀로그래피 기술과 CG를 이용한 텍스타일
공통점		- 빛의 특성을 이용한 테크놀로지 - 패션의 표현가능성의 확장

3. 퍼포먼스 표현특성 비교

빅터 앤 룰프, 후세인 살라얀, 알렉산더 맥퀸의 퍼포먼스 측면에서 살펴본 표현특성의 비교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실험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에 나타난 퍼포먼스 표현특성 비교분석

퍼포먼스 표현특성		
차이점	빅터 앤 룰프	- 유머와 유희가 있는 과장된 연출 - 형식을 깨는 파격적인 퍼포먼스
	후세인 살라얀	-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혁신적인 퍼포먼스
	알렉산더 맥퀸	- 극적이고 서사적인 퍼포먼스
공통점		- 연출과 행위를 통한 효과적 표현 - 패션의 예술성을 부각

V. 결론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은 다변화 된 사회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주제와 표현양식을 바탕으로 한 다원화 현상이 나타났다. 디자이너들은 전통적인 미의식과 표현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독창적인 스타일을 제시하였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통적인 가치관과 고정관념을 벗어난 패션디자인 창작과 연출에 이르기까지 실험적인 시도를 꾸준히 하며 일관된 작품세계를 보이는 실험적 디자이너들의 표현특성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실험적 디자이너로서는 빅터 앤 롤프, 후세인 살라얀, 알렉산더 맥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실험적 디자이너의 표현특성을 디자인 표현특성, 테크놀로지 표현특성, 퍼포먼스 표현특성으로 나누어 디자이너별로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비교하였다.

디자인 표현특성을 분석한 결과, 주제의 영감에 있어서 빅터 앤 롤프는 빛과 어둠, 여성성과 남성성 같은 이분법적 고정관념을 아이디어 중심으로 발상을 하고, 후세인 살라얀은 자연, 인생, 시간, 희망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의 철학적 사고를 중심으로 발상을 하며, 알렉산더 맥퀸은 그로테스크한 로맨틱 감성을 중심으로 발상을 하였다. 이처럼 이들은 발상과 영감의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연구와 해석을 하고,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혼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대안 등을 의상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발상의 작품화에 있어서 빅터 앤 롤프는 위트가 있는 아이디어로 고정관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였고, 후세인 살라얀은 디자인에 내재한 변형과정을 그대로 작품화시키며 개념적 디자인을 시각화하였으며, 알렉산더 맥퀸은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재해석하며 상반된 요소를 공존시키는 반전통적인 경향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디자인 영감을 작품화하는 방법은 독창적인 연구와 다양한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서로 다른 형식의 개성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주제일지라도 디자이너의 내면적 관점과 조형의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작품세계가 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빅터 앤 롤프는 아이টে일과 디테일의 증첩과 반복에 의한 과장, 상하 또는 안 밖의 위치전환, 크기나 비틀림에 의한 형태적 왜곡, 착시를 이용한 초현실적인 형태 등으로 나타났고, 후세인 살라얀은 개념적 디자인의 표현을 위해 변형이 가능한 형태나 기본적인 요소로 구성된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알렉산더 맥퀸은 구조적 테일러링을 바탕으로 왜곡과 과장된 형태로 나타났다. 소재에 있어서는 빅터 앤 롤프는 일상적인 사물과의 결합을 시도하고 있고, 후세인 살라얀은 자신이 연구 개발한 기계장치와의 결합과 라텍스나 유리섬유 같은 비관습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알렉산더 맥퀸은 나뭇가지, 사슴뿔, 깃털 등과 같은 이질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색상에 있어서는 매 컬렉션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어떤 특징으로 구분되지는 않았다. 이처럼 형태나 소재의 실험적인 시도는 각기 다르게 나타났지만, 이질적인 소재사용과 오브제의 결합 같은 실험적인 시도는 디자이너의 독특한 표현이 창의적이고 개성적으로 나타나며, 이상적인 미를 초월한 새로운 조형미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테크놀로지 표현특성에 있어서 빅터 앤 롤프는 크로마키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에 의한 즉흥적 변화를 보여주었고, 후세인 살라얀은 테크놀로지를 가장 적극적으로 접목시켜 LED, 레이저 발광장치 등을 이용한 전기적 발광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계적 장치를 이용한 변형을 보여주었으며, 알렉산더 맥퀸은 홀로그래피 기술을 이용한 연출과 CG를 이용한 텍스타일로 가상과 현실의 복합적인 표현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접목시킨 테크놀로지의 기술은 달랐지만 주로 빛의 특성을 이용한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후세인 살라얀은 구동적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의상에 혁신적인 변형을 시도하였다. 이는 패션이 갖고 있는 표현의 한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며, 미래적인

패션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는 획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퍼포먼스 표현특성에 있어서 빅터 앤 롤프의 컬렉션의 주제와 메시지를 대중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발상된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과장되고 과격적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연출하였고, 후세인 살라얀은 개념적 디자인을 대중들이 시각적인 관찰을 통해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혁신적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연출하였고, 알렉산더 맥퀸은 하나의 연극처럼 이야기의 설정과 사실적인 캐릭터의 시각화를 통해 극적이고 서사적인 퍼포먼스 형식으로 연출하였다. 이는 연출과 행위에 의한 실험적인 퍼포먼스 형식을 통해 디자이너의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패션을 총체적인 예술형식으로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2000년 이후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실험적 디자이너들의 표현특성의 공통성과 차이성을 비교 연구한 결과, 각각 자신의 패션철학에 따라 서로 다른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형의지와 예술적 감성의 표현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상업성을 기반으로 하는 컬렉션일지라도 실험적인 디자이너들은 기존관념을 탈피한 상상력과 창의적 발상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표현과 기법들을 이용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표현하고 있었고, 예술적 조형과 미적 감성은 더욱 주관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동시대의 끊임없는 변화를 배경으로 성장하였기에 획일적이지 않은 혁신적인 시도와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패션의 한계점을 벗어나 영역을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보여준 새로운 조형적 표현과 창조적인 패션의 제안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많은 영감을 미치고 있어 현대패션을 더욱 발전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패션뿐만 아니라 아트 프로젝트나

기획전시 등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패션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실험적 디자이너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특성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과 실험적인 시도를 연구한다면 문화적 다원성과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현대패션에 보다 적합한 혁신적인 의상을 창작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2000년 이후 실험적인 의상을 선보이는 디자이너들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3인 디자이너의 작품만으로 실험적 표현특성을 일반화할 수도 없지만 비전(vision)을 제시함에는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3인의 디자이너에 국한하지 않고 실험적 의상의 표현특성에 대해 연구하여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1) 김지영 (2010). 빅터 앤 롤프의 디자인 발상과 작품 특성, 복식, 60(10), pp.47-64.
- 2) 김선영 (2008).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aqueen) 작품의 그로테스크적 특성, 복식, 58(8), pp.106-119.
- 3) 윤지영 (2009-a). Hussein Chalayan 컬렉션 분석, 복식, 59(1), pp.77-93.
- 4) 나현신 (2008). 후세인 살라얀의 작품에 나타난 하이테크 패션의 미적 특성: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10(2), p.28.
- 5) 김영란 (2010). 200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 존 갈리아노와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의상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2), pp.69-85.
- 6) 박은경, 이재정 (2004). 현대패션에서 하이테크 소재의 경향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4(2), pp.1-14.
- 7) 남윤지, 김혜연 (2011). 현대 패션쇼 퍼포먼스의 패션 디자인 특성. 디자인학연구, 24(3), pp.261-270.
- 8) 이지현, 노윤선 (2011). 빅터 & 롤프(Victor & Rolf) 작품에 나타난 텍스처리즘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4), p.62.
- 9) 김지영. 앞의 책, p.54.
- 10) 이지현, 노윤선. 앞의 책, p.74.
- 11) 이영민, 이연희, 박재옥 (2007). 빅터 & 롤프 의상에

- 나타난 초현실주의 특성, 복식, 15(2), p.360.
- 12) 나현신. 앞의 책, 10(2), p.28.
 - 13) 윤지영 (2009-a). 앞의 책, p.80.
 - 14) 윤지영 (2009-a). 위의 책, p.84.
 - 15) 윤지영 (2009-b). E. H. Gombrich 관점을 통해 고찰한 관념의 재현으로서의 Hussein Chalayan 작품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3(7), pp.1137-1138.
 - 16) 허정선 (2007). 20세기 현대 미술과 패션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7(2), p.197.
 - 17) 고소대(소수): 일본 헤이안 시대에 내의로 착용했던 통소매의 평상복. 네이버 지식백과(검색어: 기모노), 자료검색일2012. 9. 20.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394099&mobile&categoryId=3781#>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Designers Displayed in Fashion Collections since 2000

Kim, Eun Jung · Park, Ok Lyun⁺

Lectur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Kyungsu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Kyungsung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esign materials that may lead to applications in creative desig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expressive characteristics from the designers who have attempted many experimental things in their fashion collection since 2000. Theoretical reviews an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fashion collection photo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fashion collections by Viktor & Rolf, Hussein Chalayan and Alexander McQueen, depicting strong creative and experimental minds from 2000 to 2012. The outcomes of analysis of the designer's expressive characteristics was as follows. First Viktor & Rolf developed unique designs and combined perfect techniques of haute couture with extraordinary ideas. Their works expressed things such as a humorous paradox, exaggerated and distorted surrealism and preposterous performances. Hussein Chalayan designed visually conceptual items. He showed the a transformation process in design and attempted to combine fashion with technology. Also, he presented innovative performances. Last, the expressive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in the designs of Alexander McQueen were structured tailoring and unconventional designs using innovative cutting. His design showed the coexistence of two opposing points and hybrids and expressed a romantic grotesque feel. He provided narrative performances. The designers showed new creative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s through their works. Furthermore, their designs broke stereotypes in different ways and they presented various modeling techniques and attempt hybrids between fashion and other fields. 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culture, art project and innovative performance were also common expressive characteristics. In summary, the experimental costumes presented at the fashion collections since 2000 attempt unstandardized innovation, express diversified meanings via many different ways, expand into other areas by pushing the envelope and fostered modern fashion by providing inspiration for other designers.

Key words: experimental designer, design expressive characteristics, technology expressive characteristics, performance expressive characteristics